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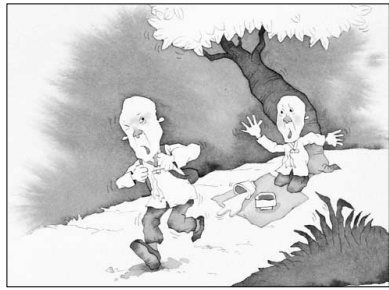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64> 용정차

‘하늘엔 극락, 땅에는 항주(杭州, 소주(蘇州))’라고 했다. 물자가 풍요롭고 교통이 발달한 데다가 풍광마저 뛰어났기 때문이다. 정원과 호수가 많고 예로부터 ‘쌀밭에 생선국 먹는 곳’이며 게다가 ‘실크(비단)의 고장’이기도 했다. 먹고 입는 것에 문제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차문화가 발달되기 마련이다. 용정차도 이곳이 원산지이다. 인근의 영은사(靈隱寺)는 임제종 양파파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영은보제(靈隱普濟1179-1253)선사는 전 등역사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동회람>20권을 편집했다. 송동파(1036-1101)가 항주 자사(刺史)를 두 번 지냈고, 인근의 서호(西湖)에 제방을 쌓은 까닭에 소제(蘇堤)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다. 그런데 그 축조비용을 도첩(승려증)을 만들어 판 돈으로 충당했다고 하니 그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몇 년 전 항주, 소주를 찾았을 때의 기



고는 쓸쓰레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서호 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영은사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허리춤에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찻불병을 차고 있었다. 투명한 프라스틱 병에 차잎이 가라앉아 있는 푸르스름한 녹차 마시는 일이 일상이 되어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다반사(茶飯事)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선사들은 차 한 잎 차 한 잔에도 공부의 도리가 스며있다.

남전 스님과 귀종 스님이 함께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목이 말라 차를 달였다. 불속 남전이 물었다. “다른 날 어떤 이가 극칙(極則)·불법의 요체를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귀종 스님 답변은 언뜻 듣기에는 동문서답이었다. “이 자리에 암자를 세우면 좋겠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서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바로 불법의 요체라는

### 길 가다가 차 달이던 남전·귀종 선사 선문답

#### “불법 요체 묻는다면?” “이 자리에 암자를...”

역은 지금도 그리 유쾌하지 않다. 그 유명한 서호(西湖)도 너무 기대를 한 탓인지 그렇고 그런 보통 호수에 불과했다. 근처 영은사에 갔을 때 비래봉(飛來峰)에는 338개의 부처님이 조각돼 있었다. 고구려의 보덕화상이 백제로 망명할 때 당신이 정진하던 바위를 통째로 가지고 날아왔다고 하는데 이를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고 부른다. 석회암 덩어리 비래봉은 멀리 인도에서 날아온 산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인도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수백개의 부처님을 조각하여 둘러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보(裨補)로 조성된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천천히 등골 속을 다니며 뜯어보고 있는데 집합시간이 되었다고 사방에서 소리친다. 해질 무렵이라 가이드가 재촉을 해대는 통에 제대로 천견도 못하고 대중 출어보고는 모두가 ‘불들러’ 간 곳이 용정차(龍井茶) 다원이었다. 차를 팔아주는 인연으로 떨어지는 구전(口錢)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다그쳤다는 것을 나중에 알

의미이다. 제대로 답변한 것이다. 거기다가 조주차 한잔을 더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런데 남전 스님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귀종 스님이 무소유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토크타랑’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 신경질적으로 되쏘아 물었다. “암자짓는 일은 그만두고 극칙의 일은 어떠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거듭하는 남전이 하도 한심해서 귀종은 차관을 걸어 차 버렸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더니 옆질러버린 차를 아까워하면서 남전이 말했다. “사형은 차를 마셨으나 아직 나는 먹지 못했소.”

이에 귀종이 혀를 끌끌차며 말했다. “그런 소견머리로는 물 한 방울도 녹이지 못하겠소.” 그리고는 썩 하니 혼자 가버렸다. 복장 터지기 전에 차려려 떼버리고 각각 가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일이다. 그런데 그 차는 어떤 지방에서 나온 차였을까? 용정차? 알 수는 없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불력회 회원들이 염불정 정진에 앞서 장계를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정진을 기다리고 있다.

### 불력회 '염불정정진' 현장

염불만 오래 하다보면 지루해져 자칫 정신이 흐트러지기 쉽다. 절만 하다보면 피곤을 쉬 느낄 수 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발심이 제대로 돼 있다면 어떤 수행을 하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작성한 대로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염불수행과 절수행을 혼합한 형태의 '염불정정진'을 하는 불자들이 있다. 불력회(佛力會, 02-2260-3892)라는 수행단체 회원들이다. 이들은 염불수행이나 절수행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염불정정진'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 靜과 動 조화속 본래자성 드러나

### 두가지 수행방식 장점 결합

####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 높여져

▶ '나~우아미타~불'... '남우아미타~불'  
5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외동동 아미타사. 20여 명의 불자들이 법당에서 무릎 꿇고 허리를 곧추세운 채 합장을 한 상태에서 녹음테이프에서 들려오는 '나무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따라한다. 한 번은 '나~우아미타~불'이라는 운율로, 또 한 번은 '남우아미타~불'이라는 운율로 반복하길 30여 분. 지도법사이자 불력회 회장인 박종린 거사(51·동국역경원 역경위원)가 축비를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선창하며 절을 하자, 나머지 불자들이 박 거사가 염송한 운율을 그대로 따라하며 절을 한다. 절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일어선다. 다시 염하는 동작이 반복된다.

불력회 회원들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염불정' 정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올 1월. 불력회는 회장인 박종린 거사와 염불정정진을 해오던 불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수행단체. 이들은 대부분 20~30년 동안 절수행과 염불수행 등을 해 오던 차에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염불정정진이 정신을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 자신 돌아보고 익히 다지고  
7년째 108배 염불정정진을 하고 있는 성담 거사(63·서울 대치동)는 "염불정수행을 지극하게 하다보니 의식에만 머물러있던 내 자신이 몸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익히기를 다

지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에서 매주 수요일 법회 때마다 오고 있다는 권오영(53) 보살은 30년 전 불교에 입문해 한 해 본 수행이 없다. 그런데 염불정정진을 하고부터는 환희심을 느끼는 맛에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수요일법에 참석하고 있다. 요즘도 집에서 하루 108배 염불정수행을 한다. 박주영(47·서울 종로구) 거사는 "염불은 정적이고 절은 동적이니 반해 염불정수행은 정과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고 집중력이 높아져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불력회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법회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저녁에도 칠야로 염불정정진을 한다. 토요일 정진은 도교인사 김상사 화계사에서 돌아가며 한다. 평상시에는 매일 108배를 하고, 아침에는 삼귀의 저녁에는 사홍서원을 하며, 끼니때마다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천수경과 금강경 등 경전 한 구절씩 독송하고 있다. 안거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1만배 염불정정진도 한다.

### ■ 염불정정진은?

말 그대로 염불하며 절을 하는 방식이다. 이론적 근거가 있는 수행법은 아니다. 이렇게 정진을 해본 불자들은 "염불수행은 염불에 주력하는 수행인데, 몸을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절 수행은 절을 하다보면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성적으로 절만 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염불정수행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이구동성이다. 염불정정진도 궁극은 자신의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박종린 회장은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구의(身口意) 3업을 녹여야 하는데, 구업을 녹이기 위해 염불을 하고, 신업을 녹이기 위해 절을 하고, 의업(생각)을 녹이기 위해 '나무아미타불'을 입념으로 염하는 것이

### 정해진 리듬과 박자에 맞춰 나무아미타불 염하면서 절

다.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등이 아닌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이유는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다. 정진방식은 '나무아미타불'을 정해진 리듬과 박자에 맞춰 염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절을 하는 속도나 호흡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호흡하는 것조차 있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나무아미타불을 일정한 리듬에 맞춰 염하는 이유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자신이 하는 염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다.

박종린 회장은 "염불정은 입으로 몸으로 표현되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본래자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며 "두 가지 수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승효과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미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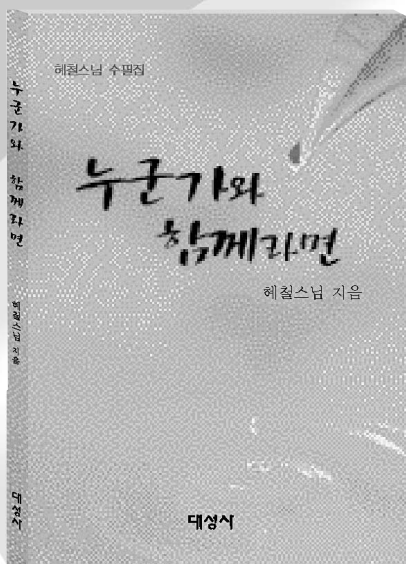
**밤은 길 아미타 센터** 전하주씨는 본래는 연세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미타 마스터 김희균

● 전하주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랑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r21.com

“잠시 스치는 인연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특히나 슬프거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그 누군가가 도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뜬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 주고,  
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 | **혜철스님** (육천 대성사 주지)  
1995 한국불교대학교 중성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 육천대성사 주지 취임  
2001 육천군 비로계 살기 종교문화위원장  
2003 한국불교대학교 중성원봉 스님 남부본원장  
2004 현대불교신문사 대진/총독자시장 취임  
2006 한국결혼상담학회 고문  
2006 육천군 문화원 총무부과 이사

선남선녀 불자들의 특별 만남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육천을 대성사 043)732-5560

## 나의 病은 내가 고친다

언제까지나 약을 의지하고 병원만 다니시렵니까?  
만가지 질병이라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병이라도 원인과 치료방법만 알면 돈 없이도 내 힘으로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용법, 자연 치료법, 요가운동 치료법, 프라나 치료법 등 여러가지 치료법을 무료로, 자세히, 정성껏 알려 드립니다.

위장병같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병, 고혈압, 당뇨, 아토피, 각종 암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병이란 나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료 상담 031)769-7842  
010-3336-3745

## (주)천성건설

- 공사 개요 웰빙공사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품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남궁당 공사
  - ◆ 석굴, 법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 공사 일체
  - ◆ 석굴, 저장실, 보관실

- 공사 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덕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담공사 28개 조성

- ◆ 본 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빌딩 301호 (7계 및 자재창고)
- ◆ 공 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 · P 010-8662-4841, 010-4581-4841  
이인창 소장 (010-6685-0203)

## (株)天星建設